소공동체와 영적 성장을 위한

길잡이

2025 **07/08**

제511호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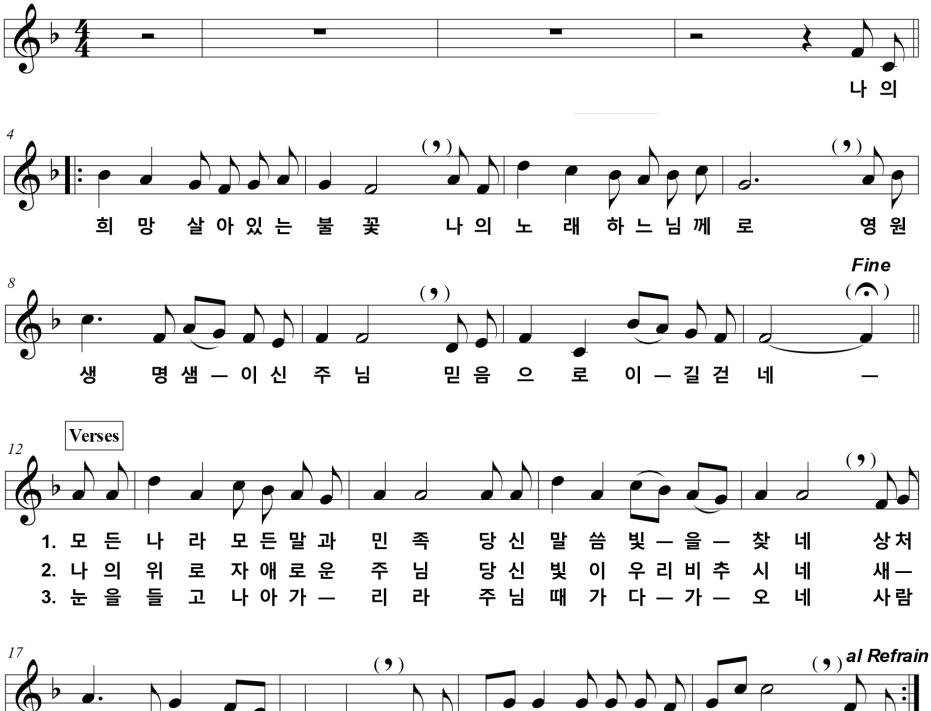
희망의 순례자들

2025 희년 주제곡

Music: Francesco Meneghello

Original text: Pierangelo Sequeri

Korean translation: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Contents

4 ● **시노드 기도/2025년 희년 기도**

6 ● **성령 안에서의 대화**

10 ● **7월 말씀나눔**(장원혁 세례자요한 신부)

연중 제14주일
연중 제15주일
연중 제16주일/농민 주일
연중 제17주일/조부모와 노인의 날

28 ● **8월 말씀나눔**(김상욱 가브리엘 신부)

연중 제18주일
연중 제19주일
연중 제20주일
연중 제21주일
연중 제22주일

48 ● **7월 가로세로 낱말 퀴즈**

48 ● **8월 가로세로 낱말 퀴즈**

50 ● **하느님의 종 브뤼기에르 주교**

선교사로서의 첫걸음

52 ● **성경 73 / 성경 통독 길잡이**

에페소서

56 ● **구역반장을 위한 WYD 소개**

59 ● **매일 하느님과 함께**

61 ● **문화산책**

발행인 정순택 **편집인** 김연범 **편 집** 박진원 **인 쇄** 가톨릭출판사

발 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 www.samok.or.kr

문 의 02) 727-2085 / samok@seoul.catholic.kr

이 교재의 저작권과 판권은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에 있으며, 모든 내용에 대한 임의 변경과 복제를 불허합니다.

시노드 기도

"주 성령님, 저희가 주님 앞에 있나이다"

(Adsumus Sancte Spiritus)

주 성령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있나이다.

주님만이 저희를 이끄시니 저희와 함께하시고
저희 마음에 머무소서.
저희가 나아갈 길을 보여 주시고
해야 할 일을 가르치소서.

나약한 죄인인 저희가 정의를 외면하여
혼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시고
무지의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또한 아무도 차별하지 않게 하소서.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저희가 언제나 진리를 따르며
의로움을 찾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원히 친교를 이루시며
언제 어디서나 저희를 도우시는 성령께
이 모든 것을 간청하나이다.
아멘.

2025년 희년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형제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과
성령을 통하여 저희 마음에 부어 주신
불타는 **사랑**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리라는 복된 **희망**을
저희에게 다시 일깨워 주소서.
악의 세력이 패배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드러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확신에 차 기다리며
온 인류와 우주가 떨쳐 일어나도록
아버지의 은총으로
저희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성실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희년의 은총이
희망의 순례자인 우리 안에서
천상 보화를 향한 갈망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의 기쁨과 평화가
온 세상에 흘러넘치게 하소서.
영원히 복되신 하느님께서는
세세 대대로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성령 안에서의 대화

성령 안에서의 대화 방법
(교구장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1. 시작 기도 – '시노드 기도'

- 시작 기도로 '시노드 기도'(4페이지)를 바치겠습니다.

2. 개인적 준비

- 오늘 모임에서는 아래 주제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우리 서울대교구의 본당 사목구 주임 신부의 임기는 5년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임 신부가 바뀌었을 때 본당이 너무 바뀐다는 걱정과 염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목자가 바뀌어도 사목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을까요? 또 5년이라는 주임 신부의 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떤 나라에서는 10년, 혹은 한번 임명되면 은퇴할 때까지 그 본당을 지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교구장 주교의 사제 인사에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외에도 지금까지 신자 생활을 하면서 만난 여러 사제들을 떠올려보며

각자의 체험들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욱 가브리엘 신부(사목국 기획연구팀)

- 오늘 모임의 주제를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 오늘 주제와 연관하여 나의 신앙 체험 안에서 어떤 울림이 있는지 3분간 묵상하겠습니다.

3. 말하고 듣기 – 〈나눔 I 〉

제공된 주제 중 자신의 신앙생활과 삶의 경험을 통해 마음에 와닿은 내용 나누기

- 각자 1-2분씩 개인 묵상의 내용과 열매에 대하여 나누겠습니다.
- (3~4명 나눔 – 침묵 – 3~4명 나눔의 형식으로 모두가 나눔을 마치고 나면) 2-3분간 침묵하며 성령께서 모임 안에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묵상하고, 하느님께 내 마음 속의 공간을 내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4. 침묵과 기도 I

다른 참가자들의 나눔 속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려주시는 목소리를 침묵 중에 경청

-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3분간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5. 다른 이들과 하느님께 공간을 내어주기 – 〈나눔 II〉

참가자들의 나눔을 통해 성령께서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말씀 나누기

- 나눔 대화에서 들은 이야기 가운데 깊은 울림이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 시간 하느님께서 어떻게 현존하시며 활동하셨다고 느꼈는지, 마음속에 계속 울려퍼졌다고 느낀 것에 대하여 1-2분씩 나누겠습니다.
- (3~4명 정도 나눔을 한 후) 2-3분간 침묵하며 성령께서 모임 안에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묵상하겠습니다.

6. 침묵과 기도 II

오늘 나눈 모든 것들 속에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려주시는 목소리를 침묵 중에 경청

- 오늘 기도와 경청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어느 여정으로 이끄시는지 성찰하는 시간을 3분간 갖겠습니다.

7. 함께 만들어 나아가기 – 〈나눔 Ⅲ〉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모두가 함께 나아가고 성장하며 복음을 살아내는 선교적 시노드 교회가 되기 위한 제안

- 묵상하고 나눔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공동체(본당)를 위해 어떤 제안을 할 수 있겠습니까?
- (3~4명 정도 나눔을 한 후) 2-3분간 침묵하며 성령께서 모임 안에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묵상하겠습니다.
- 오늘 성령 안에서의 대화 모임에 대한 소감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8. 마침 기도

- 오늘 성령 안에서의 대화 모임을 통해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마침 기도로 '2025년 희년 기도'(5페이지)를 바치겠습니다.

말씀나눔 방법

1. 시작 기도

- 시작 기도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청하며 주님을 우리 가운데로 초대합니다.

2. 말씀 듣기

- 성경 말씀을 천천히 읽습니다.
- 성경 말씀 중에서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구절을 선택합니다.
- 침묵 가운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묵상합니다.
- 다시 한 번 성경 말씀을 천천히 읽습니다.

3. 말씀 찾기

- 봉독한 말씀을 떠올리며 작성해보고, 잘 기억나지 않으면 성경 본문을 보면서 확인해봅니다.

4. 복음 이해하기

- 복음 말씀을 더 잘 묵상할 수 있도록 관련된 내용을 알아봅니다.

5. 삶을 들여다보고 나누기

- 질문을 읽고 여기에 대한 자신의 묵상을 적어보고 함께 나누어 봅니다.
- 묵상을 안내하는 질문 외에도 마음 안에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다면 적어봅니다.
- 나눔을 할 때에는 경청하고, 나눔의 내용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습니다.

6. 말씀의 실천

- 지난 주(달) 실천하기로 정한 것들을 실행했는지 함께 확인해봅니다.
- 자신과 소공동체가 한 주(달) 동안 실천할 일을 함께 정해봅니다 : 실천 사항은 누가, 무엇을, 언제 할 것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 본당 소식 및 구역·반 소식을 전달하고 건의사항을 논의합니다.
- 다음 모임 일시와 장소를 결정합니다.

7. 마침 성가와 기도

- 이 시간 함께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마침 성가로 '희망의 순례자들'(2페이지)을 부르고 기도를 바칩니다.

연중 제14주일

루카 10,1-12. 17-20

시작 기도

성호경, 시작 성가, 출석 확인과 인사 나눔

주님 초대하기

"기도로 주님을 우리 가운데 초대해 주십시오."

말씀 듣기

"루카 복음서 10장을 펴 주십시오."

"모두 함께 루카 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17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말씀 찾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다음 물음의 답을 찾아봅시다."

1.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　　)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5절)

2. "병자들을 고쳐 주며, '(　　)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9절)

3. "영들이 너희에게 (　　)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　　)이 하늘에 (　　)된 것을 기뻐하여라."(20절)

복음 이해하기

일흔두 제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파견한데 이어 다시 '일흔' 또는 '일흔두 제자'를 파견하셨다는 이야기는 오직 루카 복음에만 나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루카 복음사가가 마태오 복음 9장~10장의 열두 사도의 파견 이야기에 사용된 예수 어록(Q)에서 취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10장 1절의 '일흔두 제자'는 여러 사본에서 '70'이나 '72'라는 숫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숫자는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많은 주석가들은 '70' 또는 '72'라는 숫자가 유다인의 계보-지형도에서 72개로 분류된(창세 10장 참조) 이 땅의 모든 민족을 위한 보편적 사명을 가리키기 위해 선택된 말로 생각합니다. 또 다른 주석가들은 이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 선택한 협력자들, 또는 모세처럼 하느님의 영을 받은 70명 또는 72명의 판관들(탈출 18,13-27 참조)이나 원로들(민수 11,24-30 참조)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단순히 숫자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부터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삶을 들여다보고 나누기

"오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아래의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묵상을 적어봅시다. 그리고 그중 한가지를 소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1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명하여 파견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이름 부르고 파견하신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2 봉사하고 돌아와 기뻤던 순간이 있었다면 한 가지씩 나누어 볼까요?

말씀의 실천

"우리가 해야 할 실천 사항을 협의하고 다짐해봅시다."

1 한 주(달) 동안 공동체가 함께 실천할 일을 정해봅시다.

2 본당 및 소공동체 소식 전달, 건의 사항, 다음 모임 일시와 장소 선정

마침 성가와 기도

"주님을 따르는 충실한 제자가 되기를 청하며 마침 성가('희망의 순례자들', 2페이지)를 부르겠습니다."

"마침 기도로 '시노드 기도'(4페이지) 혹은 '2025년 희년 기도'(5페이지)를 바칩시다."(자유 기도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연중 제15주일

루카 10,25-37

시작 기도

성호경, 시작 성가, 출석 확인과 인사 나눔

주님 초대하기

"기도로 주님을 우리 가운데 초대해 주십시오."

말씀 듣기

"루카 복음서 10장을 펴 주십시오."

"모두 함께 루카 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읽겠습니다."

말씀 찾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다음 물음의 답을 찾아봅시다."

1 "'네 (　　)을 다하고 네 (　　)을 다하고 … 주 너의 하느님을 (　　)하고' '네 (　　)을 너 자신처럼 (　　)해야 한다.'"(27절)

2 "여행을 하던 어떤 (　　)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　　) 마음이 들었다."(33절)

3 "그에게 (　　)를 베푼 사람입니다." … "가서 너도 (　　) 하여라."(37절)

복음 이해하기

① 가장 큰 계명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율법 교사의 질문에 새로운 대답이 아닌 기존의 율법에 쓰여진 하느님 말씀, 곧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하느님 사랑은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시며 말씀하신 신명기 6장 5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이웃 사랑은 하느님께서 마찬가지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라며 말씀하신 레위기 19장 18절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계명을 통해 우리가 살면서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을 알려주십니다.

② 착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성 암브로시오의 「루카 복음 해설 7,74」에 따르면 '사마리아인'이라는 단어에는 '지키는 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지키는 이'는 바로 "소박한 이들을 지켜 주시는"(시편 116,6) 주님이십니다.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해 죽어가는 이를 보고 그분께서는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자비의 은총으로 우리를 받아 주시며 이웃이 되어 주십니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루카 11,37)는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삶을 들여다보고 나누기

"오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아래의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묵상을 적어봅시다. 그리고 그중 한가지를 소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1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명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2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지나친 경험이 있다면 그때 어떠한 느낌이 드셨나요?

말씀의 실천

"우리가 해야 할 실천 사항을 협의하고 다짐해봅시다."

1 한 주(달) 동안 공동체가 함께 실천할 일을 정해봅시다.

2 본당 및 소공동체 소식 전달, 건의 사항, 다음 모임 일시와 장소 선정

마침 성가와 기도

"주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자비로이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마침 성가('희망의 순례자들', 2페이지)를 부르겠습니다."

"마침 기도로 '시노드 기도'(4페이지) 혹은 '2025년 희년 기도'(5페이지)를 바칩시다."(자유 기도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연중 제16주일
농민 주일

루카 10,38-42

시작 기도

성호경, 시작 성가, 출석 확인과 인사 나눔

주님 초대하기

"기도로 주님을 우리 가운데 초대해 주십시오."

말씀 듣기

"루카 복음서 10장을 펴 주십시오."

"모두 함께 루카 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읽겠습니다."

말씀 찾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다음 물음의 답을 찾아봅시다."

1. 마르타에게는 (　　)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　　)는 주님의 (　　)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39절)

2.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　　)하고 (　　)하는구나."(41절)

3. "(　　)는 좋은 (　　)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　　) 않을 것이다."(42절)

복음 이해하기

마르타와 마리아

루카 복음은 10장 27절의 '가장 큰 계명'에 이어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마르타와 마리아를 방문'하는 이야기를 나란히 배열합니다. 이는 가장 큰 계명의 본보기를 하나씩 제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리아처럼 행동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복음을 마주하며 마리아가 잘했고 마르타는 잘못했다는 식으로만 이해해서는 안됩니다. 분명 행동으로 섬김을 나타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영원하신 하느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먼저임을 알려주시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루카 10,42)

암브로시오 성인은 이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런즉 아무도 우리한테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을 얻도록 노력합시다. 성실히 귀 기울여 듣는 일을 우리 몫으로 삼읍시다. 거룩한 말씀의 씨앗도 길가에 떨어지면 새가 와서 쪼아 먹기 십상이니까요.(루카 8,5.12 참조) 마리아처럼 지혜에 대한 갈망이 그대를 이끌게 하십시오. 그것이 더 크고 완전한 일입니다. 시중드는 일로 바빠서 거룩한 말씀에 관한 지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암브로시오 「루카 복음 해설」 7,85-86 참조)

삶을 들여다보고 나누기

"오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아래의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묵상을 적어봅시다. 그리고 그중 한가지를 소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1 마르타와 마리아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누구와 더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2 하느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의 실천

"우리가 해야 할 실천 사항을 협의하고 다짐해봅시다."

1 한 주(달) 동안 공동체가 함께 실천할 일을 정해봅시다.

2 본당 및 소공동체 소식 전달, 건의 사항, 다음 모임 일시와 장소 선정

마침 성가와 기도

"하느님 말씀을 늘 간직하는 가운데 말씀을 실천할 수 있기를 다짐하며 마침 성가('희망의 순례자들', 2페이지)를 부르겠습니다."

"마침 기도로 '시노드 기도'(4페이지) 혹은 '2025년 희년 기도'(5페이지)를 바칩시다."(자유 기도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연중 제17주일
조부모와 노인의 날

루카 11,1-13

시작 기도

성호경, 시작 성가, 출석 확인과 인사 나눔

주님 초대하기

"기도로 주님을 우리 가운데 초대해 주십시오."

말씀 듣기

"루카 복음서 11장을 펴 주십시오."

"모두 함께 루카 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말씀 찾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다음 물음의 답을 찾아봅시다."

1. "'저희에게 (　　)한 모든 이를 저희도 (　　)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　　)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4절)

2. "누구든지 (　　)는 받고, (　　)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10절)

3.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　　)들에게 (　　)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13절)

복음 이해하기

주님의 기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기도'라 불리는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루카 복음은 다섯 가지 청원으로 구성된 짧은 기도문을 전해 주고, 마태오 복음은 일곱 가지 청원으로 된 좀 더 긴 기도문을 전해 줍니다.

이러한 주님의 기도에 대하여 테르툴리아누스는 참으로 복음 전체를 요약한 것이라고 정의하며,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성경에 실려 있는 모든 청원이 이 주님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다고 고백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도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주님의 기도는 가장 완전한 기도이다. …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바랄 수 있는 것을 모두 청할 뿐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청해야 할 순서대로 청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 기도는 청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정서까지도 형성시켜 준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기도를 알려주시고, 이어서 끊임없이 청하고 찾으며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사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올바른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모아 정성껏 바치면 좋겠습니다.

삶을 들여다보고 나누기

"오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아래의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묵상을 적어봅시다. 그리고 그중 한가지를 소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1 주님의 기도 청원 가운데 내가 잘 지키지 못하는 청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2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느님께 나의 온 힘을 다해 청했던 기도가 있다면 나누어 볼까요?

말씀의 실천

"우리가 해야 할 실천 사항을 협의하고 다짐해봅시다."

1 한 주(달) 동안 공동체가 함께 실천할 일을 정해봅시다.

2 본당 및 소공동체 소식 전달, 건의 사항, 다음 모임 일시와 장소 선정

마침 성가와 기도

"청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마침 성가('희망의 순례자들', 2페이지)를 부르겠습니다."

"마침 기도로 '시노드 기도'(4페이지) 혹은 '2025년 희년 기도'(5페이지)를 바칩시다."(자유 기도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연중 제18주일

루카 12,13-21

시작 기도

성호경, 시작 성가, 출석 확인과 인사 나눔

주님 초대하기

"기도로 주님을 우리 가운데 초대해 주십시오."

말씀 듣기

"루카 복음서 12장을 펴 주십시오."

"모두 함께 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말씀 찾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다음 물음의 답을 찾아봅시다."

1.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　　)이나 (　　)으로 세웠단 말이냐?"(14절)

2. "모든 (　　)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　　)하더라도 사람의 (　　)은 그의 재산에 달려 있지 않다."(15절)

3. "(　　)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　　)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21절)

복음 이해하기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할 것을 당부하신 '탐욕'은 그리스어로 '플레오넥시아(pleonexia)'입니다. 이는 글자 그대로는 '더 많이 가짐'을 뜻하며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정당하게 속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채워지지 않는 욕망'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한국어 성경은 이 단어를 '탐욕'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교회의 공식 라틴어 성경인 불가타(Vulgata)는 이 플레오넥시아를 '아바리치아(avaritia)', 즉 '인색'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죄종(罪宗, 다른 많은 죄의 근원이면서 악습을 만드는 죄들. 일곱 개의 죄종 - 교만, 인색, 질투, 분노, 음욕, 탐욕, 나태를 두고 칠죄종이라함) 중의 하나인 인색은 '재물에 관한 무절제한 욕구로서 정당한 이유나 목적 없이 세상 물질에 대해 지나친 애착을 가지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아니라, 물질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 죄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천상 재물을 추구해야 하며, 지상 재물의 헛됨과 그리스도의 가난을 묵상해야 합니다. (가톨릭대사전 '죄종' 참조.)

삶을 들여다보고 나누기

"오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아래의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묵상을 적어봅시다. 그리고 그중 한가지를 소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1 돈이 부족할 때는 돈에 여유가 생기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막상 그렇게 되었을 때에 행복을 체험하셨나요? 그렇지 못했다면 왜 그랬는지 한번 나누어 봅시다.

2 '하느님 앞에서 부유한 사람(루카 12,21)'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말씀의 실천

"우리가 해야 할 실천 사항을 협의하고 다짐해봅시다."

1 한 주(달) 동안 공동체가 함께 실천할 일을 정해봅시다.

2 본당 및 소공동체 소식 전달, 건의 사항, 다음 모임 일시와 장소 선정

마침 성가와 기도

"부족함 없이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마침 성가('희망의 순례자들', 2페이지)를 부르겠습니다."

"마침 기도로 '시노드 기도'(4페이지) 혹은 '2025년 희년 기도'(5페이지)를 바칩시다."(자유 기도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연중 제19주일

루카 12,32-48

시작 기도

성호경, 시작 성가, 출석 확인과 인사 나눔

주님 초대하기

"기도로 주님을 우리 가운데 초대해 주십시오."

말씀 듣기

"루카 복음서 12장을 펴 주십시오."

"모두 함께 복음 12장 32절에서 48절까지 읽겠습니다."

말씀 찾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다음 물음의 답을 찾아봅시다."

1. "너희의 (　　)이 있는 곳에 너희의 (　　)도 있다."(34절)
2. "행복하여라, (　　)이 와서 볼 때에 깨어 있는 (　　)들!"(37절)
3. "너희도 (　　)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　　)이 올 것이다."(40절)

복음 이해하기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종은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으며(37절), '자기 집 종들을 맡겨 제때에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42절)의 모습입니다.

집사, 청지기(200주년성서), 관리인(공동번역성서)으로 번역된 이 단어의 그리스어 원문은 오이코노모스(oikonomos)입니다. 이는 집을 뜻하는 '오이코스'와 법칙이나 질서를 뜻하는 '노모스'를 합친 단어로 집안의 살림을 맡은 사람, 가정 경제를 관리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기서부터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경제(오이코노미아, 이코노미)'라는 단어가 나왔고, 단순히 한 가정의 살림뿐 아니라 마을 공동체, 도시, 국가 전체의 살림살이에 대해 쓰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천지창조 이전 영원으로부터 하느님의 의지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세상구원계획을 '오이코노미아', 즉 '하느님의 구원경륜'이라고 합니다. 이는 당신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을 마치 당신의 집을 관리하듯이 다스리신다는 의미도 포함합니다.

삶을 들여다보고 나누기

"오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아래의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묵상을 적어봅시다. 그리고 그중 한가지를 소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1 하느님을 위하여 나의 소중한 것을 봉헌하였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을까요?

2 본당 내에서 활동하는 가운데 느꼈던 하느님 도우심의 은총은 어떠한 것이 있으신가요?

말씀의 실천

"우리가 해야 할 실천 사항을 협의하고 다짐해봅시다."

1 한 주(달) 동안 공동체가 함께 실천할 일을 정해봅시다.

2 본당 및 소공동체 소식 전달, 건의 사항, 다음 모임 일시와 장소 선정

마침 성가와 기도

"우리에게 이웃을 형제자매로 사랑하고 돌볼 수 있도록 맡기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마침 성가('희망의 순례자들', 2페이지)를 부르겠습니다."

"마침 기도로 '시노드 기도'(4페이지) 혹은 '2025년 희년 기도'(5페이지)를 바칩시다."(자유 기도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연중 제20주일

루카 12,49-53

시작 기도

성호경, 시작 성가, 출석 확인과 인사 나눔

주님 초대하기

"기도로 주님을 우리 가운데 초대해 주십시오."

말씀 듣기

"루카 복음서 12장을 펴 주십시오."

"모두 함께 루카 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까지 읽겠습니다."

말씀 찾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다음 물음의 답을 찾아봅시다."

1 "나는 세상에 (　　)을 지르러 왔다. 그 (　　)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49절)

2 "내가 받아야 하는 (　　)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　　)인가?"(50절)

3 "내가 세상에 (　　)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 오히려 (　　)을 일으키러 왔다."(51절)

복음 이해하기

① 평화

일반적으로 평화는 '전쟁이나 갈등이 없이 평온한 상태'를 의미합니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그 이상의 의미, 즉 '하느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하느님을 향한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평화는 인간이 분투만으로 얻어내는 것이기보다는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평화는 국가들과 민족들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국제적 평화, 계층들과 개인들 사이의 사회적 평화, 마지막으로 각 개인의 양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적 평화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 가지 차원 모두 올바른 이성과 양심으로 하느님과 이웃의 진정한 선을 추구할 때에야 비로소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② 화세(火洗)

세례성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세례를 받겠다는 뜨거운 열성을 가지고 있을 경우, 그 염원으로 받는 세례를 뜻합니다. 이는 순교를 통한 혈세(血洗)와 함께 성사는 아니지만 세례성사의 효과를 가집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를 모른다고 해도, 진리를 찾고 자신이 아는 대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한다면 누구나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1260항 참조.)

삶을 들여다보고 나누기

"오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아래의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묵상을 적어봅시다. 그리고 그중 한가지를 소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1 본당이나 혹은 소속된 단체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신앙 안에서 어떻게 극복하셨을까요?

2 하느님 때문에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한 경험이 있으실까요?

말씀의 실천

"우리가 해야 할 실천 사항을 협의하고 다짐해봅시다."

1 한 주(달) 동안 공동체가 함께 실천할 일을 정해봅시다.

2 본당 및 소공동체 소식 전달, 건의 사항, 다음 모임 일시와 장소 선정

마침 성가와 기도

"하느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하여 당신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미하며 마침 성가('희망의 순례자들', 2페이지)를 부르겠습니다."

"마침 기도로 '시노드 기도'(4페이지) 혹은 '2025년 희년 기도'(5페이지)를 바칩시다."(자유 기도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연중 제21주일

루카 13,22-30

시작 기도

성호경, 시작 성가, 출석 확인과 인사 나눔

주님 초대하기

"기도로 주님을 우리 가운데 초대해 주십시오."

말씀 듣기

"루카 복음서 13장을 펴 주십시오."

"모두 함께 루카 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말씀 찾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다음 물음의 답을 찾아봅시다."

1 "너희는 (　　)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24절)

2 "'저희는 (　　)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는 저희가 사는 (　　)에서 가르치셨습니다.'"(26절)

3 "지금은 (　　)지만 (　　)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　　)지만 (　　)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30절)

복음 이해하기

①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너희는 힘써라'라는 말씀의 그리스어 원문은 '아고니제스테'(agonizeste)입니다. 이 말은 '아고니아'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는 경기나 시합에서 승리하기 위해 육체적·정신적으로 괴로움을 겪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나온 '아고니스타'라는 말은 경기나 시합에 출전한 사람을 일컫습니다. '아고니스타'는 승리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기 자신을 끝까지 몰아붙여 고통을 감내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수난하시기 전,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근심과 번민에 휩싸여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마르 14.34)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정원에서의 고통(Agony in the Garden)'이라고 부릅니다.

② 하느님 나라의 잔칫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식탁 앞 의자에 바르게 앉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식탁 주위에 긴 침상을 두고 비스듬하게 누워서 식사를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직역한다면 하느님 나라의 잔칫상에 '비스듬히 누울 것이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음식물을 먹는 행위 그 이상으로써, 삶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행위, 즉 '연회(심포지움)'였습니다.

삶을 들여다보고 나누기

"오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아래의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묵상을 적어봅시다. 그리고 그중 한가지를 소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1 하느님을 위해 교회의 계명을 지키며 어떤 손해를 감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2 미사를 봉헌하며 어느때에 주님의 제대 주위에 모인 형제자매들과 일치하는 체험을 하셨나요?

말씀의 실천

"우리가 해야 할 실천 사항을 협의하고 다짐해봅시다."

1 한 주(달) 동안 공동체가 함께 실천할 일을 정해봅시다.

2 본당 및 소공동체 소식 전달, 건의 사항, 다음 모임 일시와 장소 선정

마침 성가와 기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이 마련하신 풍성한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마침 성가('희망의 순례자들', 2페이지)를 부르겠습니다."

"마침 기도로 '시노드 기도'(4페이지) 혹은 '2025년 희년 기도'(5페이지)를 바칩시다."(자유 기도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연중 제22주일

루카 14,1.7-14

시작 기도

성호경, 시작 성가, 출석 확인과 인사 나눔

주님 초대하기

"기도로 주님을 우리 가운데 초대해 주십시오."

말씀 듣기

"루카 복음서 14장을 펴 주십시오."

"모두 함께 루카 복음 14장 1절, 7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말씀 찾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다음 물음의 답을 찾아봅시다."

1. "누구든지 자신을 (　　)는 낮아지고 자신을 (　　)는 높아질 것이다."(11절)

2. "네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　　)들, (　　)들, 다리저는 이들, (　　)들을 초대하여라."(13절)

3.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　　)할 것이다. 의인들이 (　　)할 때에 네가 (　　)을 받을 것이다."(14절)

복음 이해하기

교만

혼인 잔치에 가서 윗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는 끝자리에 앉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더 귀한 이가 초대를 받았을 경우, 그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끝자리로 가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자신의 처지 이상으로 자기를 높이려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망각하고 자신이 마치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 하느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교만에서 나오게 됩니다. 가톨릭교회는 교만을 일곱 가지 죄의 뿌리, 즉 칠죄종 중의 하나로 가르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느님을 믿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하느님을 증오하게 되고 하느님의 사랑을 거부하게 되며 남을 시기하게 됩니다. 성 아우구스티노(354-430)는 교만한 성직자는 마귀와 같다고 하였고, 성 베르나르도(1090-1153)는 교만한 사람들은 교회를 업신여기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시대도 하느님께서 인류에게 나누어주신 생명의 '관리자'임을 잊고 생명의 '주인'인 듯 처신하는 교만의 죄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성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삶을 들여다보고 나누기

"오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아래의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묵상을 적어봅시다. 그리고 그중 한가지를 소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1 무시당하거나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을 때, 비난과 멸시를 당하신 예수님을 떠올려본 적이 있으신지요?

2 하느님 나라에 공로를 쌓기 위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풀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말씀의 실천

"우리가 해야 할 실천 사항을 협의하고 다짐해봅시다."

1 한 주(달) 동안 공동체가 함께 실천할 일을 정해봅시다.

2 본당 및 소공동체 소식 전달, 건의 사항, 다음 모임 일시와 장소 선정

마침 성가와 기도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미천한 이를 끌어올리시는 하느님을 찬미하며 마침 성가('희망의 순례자들', 2페이지)를 부르겠습니다."

"마침 기도로 '시노드 기도'(4페이지) 혹은 '2025년 희년 기도'(5페이지)를 바칩시다."(자유 기도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7월> 가로세로 낱말 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 가 로 열 쇠 >

1.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서품을 받은 성당. 상하이에 있다. (매일 미사를 참조하여 중국어 발음으로 적을 것.)
3. 예수님이나 성인들의 발자취가 남은 거룩한 땅.
4. 대한민국의 첫 번째 우주 발사체, KSLV-Ⅰ. 발사장이 있는 섬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5. 7월 31일에 축일을 지내는 이냐시오 성인의 출신지.
6. 가장 빨리 달릴 것이라고 예상하는 말에 돈을 걸어 내기를 하는 오락.
8. 머리털을 짧게 깎거나 자름.
11. 작은 형제회 평수사로 고르쿰에서 수도생활을 하다 칼뱅파에 의해 18명의 동료와 함께 1572년 7월 9일에 순교하였다.
13. 한자로 예수를 음차한 말. 조선 후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이 표현

을 사용했다.

14. 뜨개질하여 만든 옷이나 옷감.
15. 중세의 뛰어난 철학자이자 사상가로 주교이며 교회 학자. 7월 15일에 축일을 지낸다.
16. 국수를 증기로 익히고 대개 기름에 튀겨서 말린 즉석식품.

< 세 로 열 쇠 >

1. 마태오 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시작하시며 말씀하신 행복 선언. 참된 복에 관한 여덟 가지.
2. 618년 수나라를 이어 중국에 들어선 통일 왕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때 연합하였다.
3. 십자가를 그으며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바치는 기도문. 보통 다른 기도의 시작과 끝에 바친다.
7. 세리 출신인 예수님의 제자로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복음서를 집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9. 전기를 일으키는 시설을 갖춘 곳. 서울대교구 사목국 유튜브 채널의 코너 이름이기도 하다.
10. 20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복식 디자이너.
11. 따로 떨어져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 군사가 많은 수의 적군과 용감하게 잘 싸움. 비유적으로 남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힘에 벅찬 일을 잘해 나가는 것을 이르는 말.
12. 바오로의 제자인 티모테오의 출신지(사도 16장 참조).
13. 예수님의 제자로 제베대오의 아들이며 사도 요한의 형. 특히 에스파냐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서 공경을 받고 있다. 7월 25일에 축일을 지낸다.

김광두 고스마 신부(전산정보실)

'가로세로 낱말퀴즈' 정답은 사목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월> 가로세로 낱말 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가 로 열 쇠 >

1. 로마의 4대 대성전(바실리카) 가운데 하나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묻힌 곳이다. 8월 5일에 성모님께서 눈을 내려 주신 자리에 성당을 세웠다고 하여 이날 봉헌 기념일을 지낸다.
4. 익은 농작물을 거두어들임.
5. 재해나 재난 따위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일을 맡아보는 곳.
6. 인류를 죄악과 고통, 죽음 등에서 건져 내어 하느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하는 것.
8. 전하여 널리 퍼뜨림. “온 세상에 ○○하리 복음 말씀을 …”
9. 하느님의 심부름을 하는 영적 존재들.
11. 정원을 가꾸는 일을 맡아 보는 사람. 마리아 막달레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인줄 알았다(요한 20,15 참조).

12. 8월 23일에 축일을 지내는 성녀 로사의 출생지이자 활동지.
14. 임금이 중요한 임무를 위하여 파견하던 임시 벼슬. 심부름하러 가서 오지 아니하는 사람을 “함흥 ○○”라고 한다.
17. 이탈리아의 수도. 바티칸이 있는 도시.
19. 제18대 교황으로 성 히폴리토와 함께 사르데나 섬으로 유배가서 순교하였다. 8월 13일에 축일을 지낸다.
21.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 장례를 치른 요셉의 출신지.

< 세 로 열 쇠 >

1.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께서 지상 생활을 마치고 하늘로 들어 올려지심을 믿는 교리. 8월 15일에 대축일을 지낸다.
2. 관구장 주교인 대주교가 사목하는 사목구. 서울○○○.
3.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간청하고 탄원하는 행위.
4. 연료전지에서 수소를 전기로 변환하여 달리는 자동차.
7. 먼 곳으로 싸우러 나가거나 떠남.
10. 국수, 새끼, 실 따위를 동그랗게 포개어 감은 뭉치.
13. 8월 1일에 축일을 지내는 성 알폰소 주교와 4일에 축일을 지내는 성 요한 사제, 14일에 축일을 지내는 성 막시밀리아노 사제의 이름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이름.
15. 북 이스라엘의 수도. 예수님 시대에는 이 지역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하였다.
16. 행사, 자선 사업 따위에 기부금을 내어 돕는 사람.
18. 땅속 깊은 곳에서 암석이 지열로 녹아 반액체로 된 물질.
20. 창세기에서 하느님의 명에 따라 방주를 만든 인물.

김광두 고스마 신부(전산정보실)

‘가로세로 낱말퀴즈’ 정답은 사목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종
브뤼기에르 주교

선교사로서의 첫걸음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선물인 '하루'는 24시간으로 공평하지만, 그 시간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허투루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있고, 반대로 충실히 보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브뤼기에르 신부는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자신의 소명에 확신을 가지고 매 순간을 충실하게 채워나갔습니다. 사실 그가 파리외방전교회에서 머무르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선교사가 될 준비를 해나가고 필요한 덕목들을 키우는 가운데 순교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하느님께 청했고, 선교지 파견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기쁨과 정성을 충만히 담았습니다. 선교 사도직을 위한 다섯 달의 수련기를 보낸 뒤, 파리외방전교회의 지도 신부들은 그가 선교지에 파견될 준비를 마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교사로서 첫 발걸음을 내딛는 파견을 앞두고 브뤼기에르 신부는 파견 예식(송별 예식)에 참여했습니다. 사랑했던 모든 것들과 작별하고 언제 주님 품으로 돌아갈지 알 수 없는 먼 미지의 땅으로 향하는 모습에 함께한 이들은 아쉬움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고귀한 발걸음에 축복을 전하며 또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연준 사도요한 신부(사목국 기획연구팀)

브뤼기에르 주교 송별기 중에서

파리외방전교회 신학교 교수 신부 한 분이 회를 대표하여 새 선교사들을 환영하고 격려하는 뜻으로 인사말을 하고 나면 새 선교사들은 성당 앞 계단을 올라가서 감실 두 발짝 앞에서 동료들을 향해 돌아선다. 그러면 송별식 참석자들이 모두 선교사들의 발에 입을 맞춘다. 그때 다 같이 부르는 노래 가사는 이렇다.

"저 멀리 평화와 구원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지상 천사들의 발은 그 얼마나 아름답고 존경스러운가!"

이때 많은 이들의 눈물을 흘리는데, 동행하는 선교사 없이 홀로 땅끝으로 떠나는 경우에는 감동이 더욱 컸다. 그 시절에는 선교사 지망생이 적어서 홀로 떠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브뤼기에르 신부 역시 그처럼 기다리고 원했던 시간이 되어 작별을 고할 때 혼자였다.**

송별식을 통해서 생생한 연수를 받는 예비 선교사들은 … 사도 바오로가 "나는 매일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자신들의 삶은 희생 제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 진실한 신심은 주님께서 저들을 선교사로 부르면서 베푸시는 선물이다.

『브뤼기에르 주교 서한집』, 391~392쪽.

《브뤼기에르 주교 서한집》© 정양모·윤종국 옮김, 가톨릭출판사, 2007.
《브뤼기에르 주교 여행기》© 정양모 옮김, 가톨릭출판사, 2007.
《브뤼기에르 주교 바로 살기》© 생활성서사, 2024.

성경 73

성경 통독 길잡이

항구 도시인 에페소는 육지와 지중해 바다를 잇는 교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 유통의 중심지라는 특성으로 인해 사치와 향락이 만연했습니다. 또한 아르테미스 여신 숭배의 중심지였으며,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 지어진 신전도 있었을 만큼 우상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바오로 사도 역시 2, 3차 선교 여행 때 에페소에 들려 교회 공동체를 세웠으며, 3차 선교 여행 때는 에페소에서 오랜 시간 머물면서 코린토서를 비롯해서 갈라티아서, 필리피서, 필레몬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3년여 가량을 에페소에 머물렀고 그곳 교회 구성원들과 친교를 나눴음에도 에페소서에서는 그들을 잘 알지 못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나 코린토 서간의 문체와 에페소서의 문체가 상이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에페소서는 바오로 사도의 친서가 아닐 수도 있으며 그의 신학적 기조를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빌려 작성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장 1-2절에서 바오로 사도는 다른 서간들과 마찬가지로 편지의 수신처인 에페소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인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장 3절-3장 21절에서 에페소 교회를 향해 교리적 가르침으로 하느님의 구원 행위가 지향하는 귀결점이 교회라는 것을, 그런 점에서 교회야말로 일치와 화해의 장소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먼저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느님의 은총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창조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우리를 거룩한 존재가 되게끔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죄의 용서라는 넘치도록 풍성한 은총이 주어졌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성령의 인장을 받아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을 찬양하게 된다고 알려줍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에 대해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한데 모으는 계획입니다."(1,10)라고 말합니다. 이로써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수렴될 것이며, 그때까지 세상의 완성을 향한 하느님의 창조가 계속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임을 믿고 하느님의 소유로 속량될 때까지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자고 독려합니다. 이어서 바오로 사도는 자신과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에페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느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뒤 만물의 으뜸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의 기도를 바칩니다.

2장에서 바오로 사도는 육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며, 세상의 것

에 마음을 빼앗긴 채 저질렀던 죄와 잘못으로 인해 죽음의 운명을 지닌 인간이 하느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해 구원받게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덕행의 결과가 아니라 오롯이 하느님의 은총이며 선물입니다. 다음으로 바오로 사도는 할례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할례받은 자, 할례받지 않은 자로 나눠지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계명과 율법을 폐지하시고 당신의 구속 공로로 모든 인간을 하느님과 화해시키셨으며 일치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신 하느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가 되었으며, 같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모퉁잇돌로 하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방인들과 이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도직 활동의 정당성을 피력한 뒤 이 모든 것을 이끌어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에페소 교회 공동체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 함께 하셔서 그들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4장 1절-6장 20절은 일치와 화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바오로 사도의 구체적인 권고가 이어집니다. 무엇보다 먼저 바오로 사도는 살아가는 모습은 각기 다르지만 한 분이신 하느님 안에서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만큼 일치를 이루라고 당부합니다.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새 생명의 품위에 맞게 서로에게 진실하며 죄를 짓지 말고, 하느님과 성령을 슬프게 만들지 않도록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며 서로를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허황된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빛의 자녀로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과 의로움 그리고 진실이 드러나는 삶을 살라고 가르칩니다. 이 밖에도 가족 안에서 아내와 남편의 덕목을 가르치는데 여기서도 핵심은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그리고 교회를 대하는 것처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로 하느님 안에서 관계를 성화시킬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단순히 이를 인륜이나 도덕으로 접근하지 않고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으며, 서로를 대할 때 하느님을 대하고 하느님께 행동하는 것처럼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느님을 향한 굳은 믿음을 간직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면서 우리를 향해 유혹의 손길을 내미는 악령들과 끝까지 싸워 이길 것을 당부한 뒤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6장 21-24절은 맺음말로서 협력자로 키티코스를 에페소 교회로 보낸다는 이야기와 함께 하느님의 평화를 전하고 있습니다.

노현기 다니엘 신부(사목국 행정지원팀)

2027 서울 WYD,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의 열정을 만끽하십시오!

콧등에 스치는 바람, 아스팔트 위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 그리고 밤마다 괴롭히는 모기들은 뜨거운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2년 뒤, 우리는 더욱 뜨거운 열기로 가득할 서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교황님과 함께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이 모여 함께 젊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World Youth Day, 한글 공식 명칭으로는 '세계청년대회'(WYD)가 열릴 예정입니다.

선종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2023년 리스본 WYD 폐막미사에서 다음 WYD 대회의 개최지로 대한민국 서울을 발표해주셨는데, 그 이후, 우리 교구는 어떻게 WYD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먼저 2023년 9월 27일 '2027 서울 WYD 조직위원회'가 발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WYD와 함께하고 싶은 청년들, 그리고 장년 신자들과 수도자와 사제들로 구성된 '기초연구팀'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연구팀에서는 한국 천주교회의 청소년, 청년 사목의 현실을 각자의 체험을 바탕으로 나누었고, 앞으로 교회가 이들을 동반하기 위한 청사진을 그려갔습니다.

또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전 세계 젊은이들, 그리고 그들

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보내신 권고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와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발간한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를 읽고 시노드적 나눔 방식인 "성령 안에서의 대화"를 통해 WYD를 통한 청년 사목의 쇄신 방향을 나누었습니다.

2024년에는 WYD 준비를 위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해 2월 교구 보좌주교로 임명되신 이경상 바오로 주교님께서는 WYD 지역조직위원회의 총괄코디네이터를 맡으셨고, 교황청 WYD 주무 부서인 '평신도가정생명부' 주관으로 로마에서 제1차 국제준비회의도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교구장님께서는 각 지역교회의 청소년 담당 주교와 전문가들에게 앞으로 2027 서울 WYD를 어떤 사목적 방향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 발표하셨고, 교황청과 WYD와 관련한 주요 협약을 맺었습니다.

9월 24일에 교황님께서는 2027 서울청년대회를 위한 주제 성구로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 16,33)는 말씀을 선포하셨고 이와 함께 로고를 발표하셨습니다. 로고는 한국의 전통적인 서예기법을 통해 '서울'을 표현했고, 동시에 '서울' 안에는 'W', 'Y', 'D'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피로써 신앙을 증거한 순교자들의 정신을 드러내는 빨강과 청년들의 열정을 표현하는 파랑으로 십자가를 형상화했으며, 그 바탕에 그려진 노랑색 원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2027년 서울 전역을 뒤덮으며 청년들이 부르는 성가와 친교의 웃음 소리가 가득할 날을 상상해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WYD에는 늘 두 가지 상징물이 함께 하는데, 하나는 젊은이 십자가라고도 불리는 'WYD 십자가'이고 다른 하나는 '로마 백성의 구원자 성모 성화'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경우 1983~1984년 '구원의 특별 성년'에 로마 베드로 대성당을 방문하는 전 세계 신자들이 볼 수 있는 상징적인 십자가를 만든 것에서 유래하는데, 성 요한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희년을 마무리하며 이 3.8미터의 거대한 나무 십자가를 청년들에게 맡기며 회개를 위한 기도를 더욱 열심히 봉헌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이제 한 걸음씩 기도와 신심 활동, 복음의 정신에 입각한 선교와 신앙 생활의 실천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전 세계 청년들에게 우리 한국 천주교회의 열정과 신심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나아가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많은 청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해주는 WYD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기도해 주십시오.

2027 서울 WYD 지역조직위원회 법인·기획사무국장
이영제 요셉 신부

매일 하느님과 함께

이 달에 청하고 싶은 은혜 : .....

날짜	아침저녁 기도	미사 참례	성경 읽기	묵주 기도	성체 조배	희생과 선행	화살 기도	가정 기도	나의 다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계									

하느님께 감사드릴 일 : .....

..... 가(이)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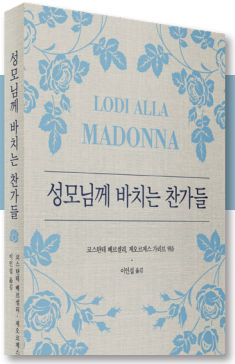
매일 하느님과 함께

이 달에 청하고 싶은 은혜 : .....

날짜	아침저녁 기도	미사 참례	성경 읽기	묵주 기도	성체 조배	희생과 선행	화살 기도	가정 기도	나의 다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계									

하느님께 감사드릴 일 : .....

..... 가(이)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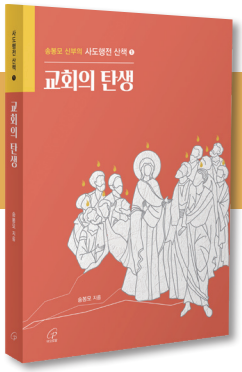
성모님께 바치는 찬가들

코스탄테 베르셀리·제오르제스 가리브 편저, 이인섭 옮김 | 140×205 | 304면 | 24,000원 | 가톨릭출판사

천 년의 시간 동안 전해 내려온 성모님을 향한 인간의 찬미

성모님을 향한 찬미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또 어떻게 지금까지 전해지는 걸까요? 이 책의 저자들은 성경의 마니피캇부터 시작해 교회 공동체에 오랜 세월 전해지는 성모 찬미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합니다. 이 책 속에서는 유명한 성인들이 남긴 찬미가와 서방·동방 교회에 전해지는 성모님의 여러 모습, 성모 신심의 역사적인 발전 과정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각 찬미가 끝에 덧붙여진 짧은 해설은 성모님에 대한 신학적 지식·믿음에 깊이를 더해줍니다. 하느님의 어머니이며 신앙의 동반자인 성모님께 아름다운 기도를 드려보세요.

가톨릭북플러스 www.catholicbookplus.kr | 도서 구입 문의 02) 6365-1888



교회의 탄생

송봉모 지음 | 150*220 | 368쪽 | 22,000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자제품의 '사용 설명서'처럼 신앙인 또는 교회 공동체의 기본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 영혼은 감동하고, 우리 심장은 두근거리며, 변화를 향한 의지가 솟아날 것입니다.

이 책은 독자들이 초대교회의 탄생과 성장 과정을 보다 분명하고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당시의 문화적·정치적·사회적 배경에 관한 설명은 물론 풍부한 예화를 활용하여 사도행전 1-2장을 차근차근 흥미롭게 풀어냅니다. 초대교회의 삶과 영성을 담은 '사도행전 산책' 시리즈의 첫 번째인 이 책으로 신앙인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도움에 힘입어 우리도 공동체 차원에서 그리고 개인적 차원에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오로딸 인터넷서점 www.pauline.or.kr | 구입 문의 02-944-0944

2025 년 희 년

희망의 순례자들